



No. 2022-240  
품목 딸기 와인(Strawberry Wine)  
HS CODE 2206.00.1090  
국가 호주(Australia)



# C.O.N.T.E.N.T.S

<b>I</b>	<b>시장 현황 및 전망</b>	3
	1. 시장 규모 2. 수출입 통계	
<b>II</b>	<b>트렌드</b>	10
	1. 소비 트렌드	
<b>III</b>	<b>유통</b>	15
	1. 유통구조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b>IV</b>	<b>통관 및 제도</b>	23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3. 라벨링 4. 위생요건	
<b>V</b>	<b>시사점</b>	37
	1. 수출 확대 방안 2. 참고 문헌	

# I

## 시장 현황 및 전망



# 01 시장 규모

## 호주 와인 시장 규모

지원 기업의 식품은 딸기 와인으로 상위 품목인 와인 시장의 규모를 조사함

2021년 호주 와인 시장 규모는 소매 판매액 기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2억 7,210만 호주 달러(약 10조 121억 원<sup>1)</sup>)를 기록함.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0.1%를 기록함

-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및 친목을 위한 활동이 줄어들면서 와인 소비량이 감소함. 음식점, 주점 등 매장에서의 와인 판매량이 급감한 반면, 집에서 와인을 소비하는 수요가 늘어나 소매점 판매는 증가함

향후 5년간(2022-2026년)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4.0%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하여 2026년에는 149억 3,030만 호주 달러(약 13조 2,7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호주 와인 시장 규모 추이(2017-2026년)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1) 1호주 달러=888.46원(2023년 2월 2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 호주 비(非)포도 와인 시장 규모

2021년 호주 비(非)포도 와인<sup>2)</sup> 시장 규모는 소매 판매액 기준 전년 대비 9.6% 감소한 1,030만 호주 달러(약 92억 원)를 기록함.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1.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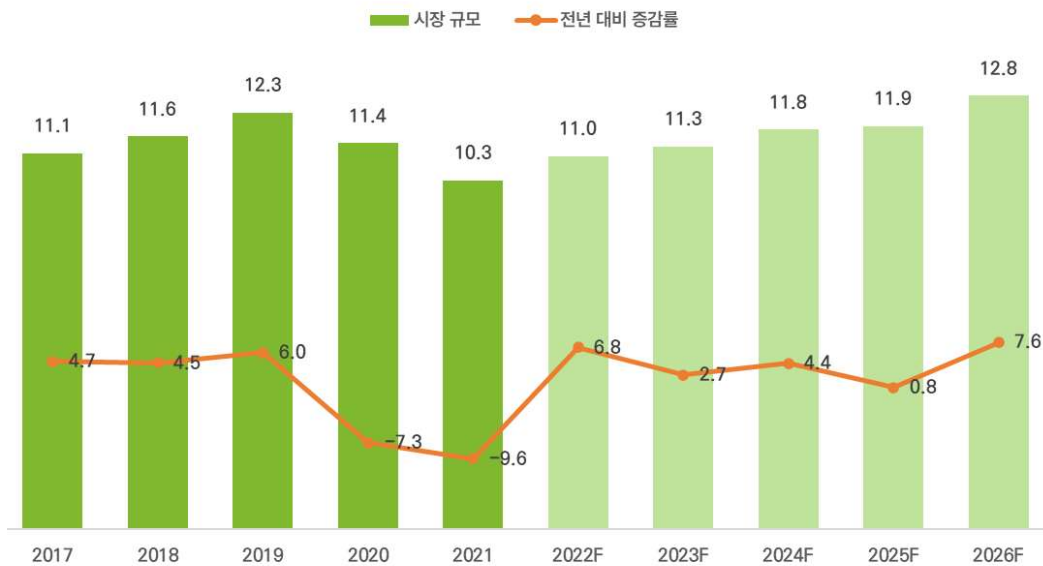
향후 5년간(2022-2027년)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3.9%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하여 2026년에는 1,280만 호주 달러(약 1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호주 비(非)포도 와인 시장 규모 추이(2017-2026년)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 포도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와인 및 담금주를 포함함

# 02 수출입 통계

##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HS CODE 2206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HS CODE 2206.00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HS CODE 2206.00.1090

- 기타

국가별 HS CODE

- 글로벌: 2206.00
- 호주: 2206.00
- 한국: 2206.00.1090



## 글로벌 딸기 와인 수입 규모

2021년 글로벌 딸기 와인(HS CODE 2206.00) 수입 규모는 19억 6,149만 2,000달러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7.6% 증가함

- 2021년 미국은 5억 2,387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 규모의 약 26.7%를 차지함
- 이어서 영국(10.8%), 중국(6.0%), 홍콩(5.2%), 일본(4.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호주는 2,268만 2,000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 규모의 1.2%를 차지함

**표 1** 글로벌 딸기 와인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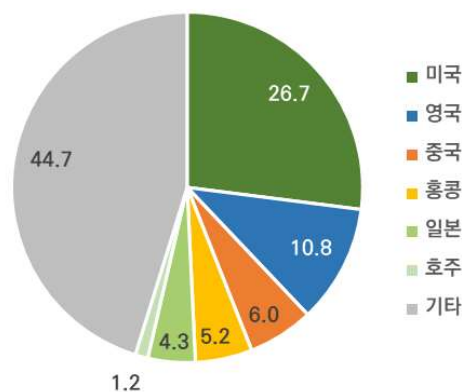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1,461,891	1,513,678	1,523,266	1,728,506	1,961,492	7.6
1 미국	221,030	237,320	288,824	511,811	523,870	24.1
2 영국	212,534	183,491	178,931	173,740	211,781	-0.1
3 중국	29,869	44,461	60,474	73,771	117,720	40.9
4 홍콩	41,694	49,003	53,694	87,795	101,613	24.9
5 일본	173,030	131,433	100,746	92,403	84,655	-16.4
17 호주	28,055	23,880	20,793	25,382	22,682	-5.2
기타	755,679	844,090	819,804	763,604	899,171	4.4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3** 글로벌 딸기 와인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자료: ITC World Trademap

## 호주 딸기 와인 수입 규모

- 2021년 호주의 딸기 와인(HS CODE 2206.00) 수입 규모는 2,268만 2,000달러를 기록함
- 국가별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수입액이 579만 7,000달러로 가장 큰 비중(25.6%)을 차지함
  - 이어서 일본(22.5%), 스웨덴(16.8%), 아일랜드(14.8%), 한국(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21년 대한국 수입 규모는 189만 1,000달러로 전체 수입국 중 5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18.3%를 기록함



표 2

호주 딸기 와인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28,055	23,880	20,793	25,382	22,682	-5.2
1 뉴질랜드	5,603	3,374	4,139	6,951	5,797	0.9
2 일본	2,463	2,775	2,889	3,496	5,102	20.0
3 스웨덴	11,914	9,425	6,548	7,289	3,821	-24.7
4 아일랜드	3,050	3,384	2,549	3,716	3,346	2.3
5 한국	964	1,252	1,306	1,345	1,891	18.3
기타	4,061	3,670	3,362	2,585	2,72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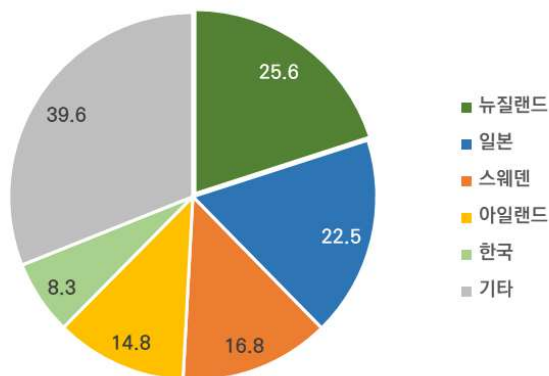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4

호주 딸기 와인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자료: ITC World Trademap



## 한국 딸기 와인 수출 규모

2021년 한국의 딸기 와인(HS CODE 2206.00.1090) 수출 규모는 314만 4,000달러, 수출량은 960톤을 기록함

- 수출액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 3.7%를 기록함
- 수출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1%를 기록함

2021년 한국의 對호주 딸기 와인 수출 규모는 13만 7,000달러, 수출량은 44톤을 기록함

- 對호주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4%를 기록함
- 對호주 수출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1.2%를 기록함



표 3

한국의 對글로벌 및 對호주 딸기 와인 수출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對 글로벌	수출액 (YoY)	2,716	2,650	2,393	2,340	3,144	3.7
		-12.1	-2.4	-9.7	-2.2	34.3	-
	수출량 (YoY)	787	819	713	720	960	5.1
		-11.6	4.1	-13.0	1.1	33.2	-
對 호주	수출액 (YoY)	195	211	166	158	137	-8.4
		34.6	65.4	-48.5	-4.9	-12.9	-
	수출량 (YoY)	70	116	68	47	44	-11.2
		81.4	64.2	-41.3	-31.2	-6.4	-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 II

## 트렌드



# 01 소비 트렌드

## 와인 및 발효주 관련 소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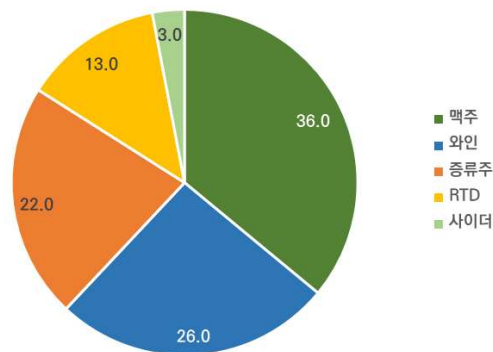
IBISWorld에 따르면 2020년 호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주종은 맥주(36%)이며, 와인은 26%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 이어서 증류주(22%), RTD(13%), 사이더(3%) 순임
- 사이더의 경우, 아직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최근 도수가 낮은 주류 및 과일맛 주류가 유행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림 5 호주 소매점 기준 주종별 시장 점유율(2020년)

(단위: %)



자료: IBISWorld

호주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호주 내 프리미엄 와인 및 샴페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와인을 소비하는 대신 품질이 우수한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호주 와인 시장의 프리미엄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소매점에서 10호주 달러 이상의 와인 판매량이 증가 추세인 것도 프리미엄 와인의 인기를 증명함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 와인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 호주 유기농 와인 생산업체 Angove Family Winemakers는 20개 이상의 유기농 인증 와인을 생산 중이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호주 와인 시장에서 와인은 바, 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에서 판매되는 온 트레이드(On-trade)와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등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는 오프 트레이드(Off-trade)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7-2021년) 오프 트레이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6.7%를 기록하며 지속 성장함
- 반면, 온 트레이드 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장 규모가 하락하고 있음



표 4

호주 와인 시장 온/오프 트레이드 시장 규모(2017-2021년)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7년	2021년	연평균 성장률
오프 트레이드	4,902	6,345	6.7
온 트레이드	6,070	4,927	-5.1
합계	10,668	11,806	1.4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1년 호주의 비(非)포도 와인 기업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Konish Brewing이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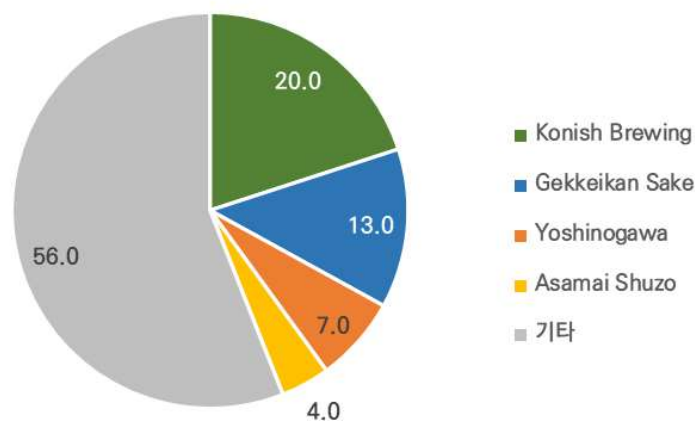
- 이어서 Gekkeikan Sake(13.0%), Yoshinogawa(7.0%), Asamai Shuzo(4.0%) 순임



그림 6

호주 비(非)포도 와인 기업별 시장 점유율(2021년)

(단위: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빅데이터 분석

호주 내 웹트래픽 수가 높은 아마존에서 딸기와인(strawberry win)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순임
- 수집 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 문구), 소비자 반응(리뷰)이며 총 수집 건수는 제품 178건, 소비자 반응 5,106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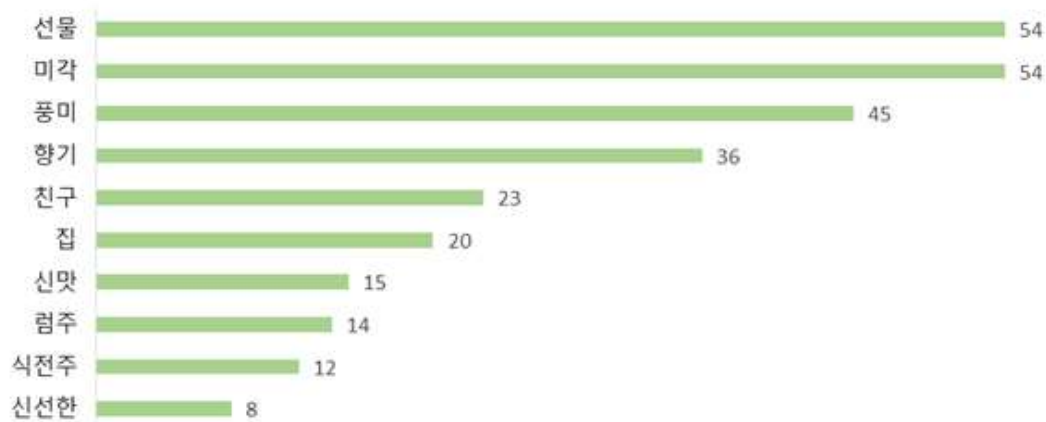
### 1.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제품 소개 출현 단어빈도는 선물 54건, 미각 54건, 풍미 45건순이며, 다른 주요 단어들은 향기, 친구, 집, 신맛, 럼주, 식전주, 신선함순으로 출현함. 선물 용도로 소개하는 노출도가 높았고 그 뒤로는 와인의 맛과 향에 관한 검색어가 노출됨

 표 5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순위	출현단어	출현빈도
1	미각	54
2	선물	54
3	풍미	45
4	향기	36
5	친구	23
6	집	20
7	신맛	15
8	럼주	14
9	식전주	12
10	신선한	8

 그림 7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 2. 동시출현단어 분석

딸기와인에 관한 연관단어를 추출하였으며 각 빈도는 아래 표와 같음. 선물에 관련된 단어의 빈도가 높게 도출됨. 향과 숙성도 관련된 단어도 상위 검색어에 나타남



표 6

제품 특성 연관단어 출현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
1	선물	22
2	향기	10
3	원산지	8
4	집	7
5	호주 스타일	6
6	오래된	5
7	기념일	3
8	생일	3

## 3. 리뷰 출현 단어 분석

딸기와인을 구매한 호주 소비자들의 구매 요인은 맛, 미각, 깔끔함 등 출현으로 보아 와인의 맛을 가장 신경쓰는 경향을 보임



표 7

소비자 반응 연관단어 키워드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
1	정말 맛있는	55
2	선물	43
3	미각	23
4	깔끔한	23
5	전문적인	19
6	비율이 좋은	18
7	단맛이 강한	17
8	선호도	17
9	크리스마스, 부모님	15
10	최상의	13



# III

유통



# 01 유통구조

## 호주 주류 유통구조

호주 주류 유통은 크게 도매와 소매로 구분할 수 있음

IBISWorld에 따르면, 호주 주류 도매 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Metcash로 전체 시장의 70.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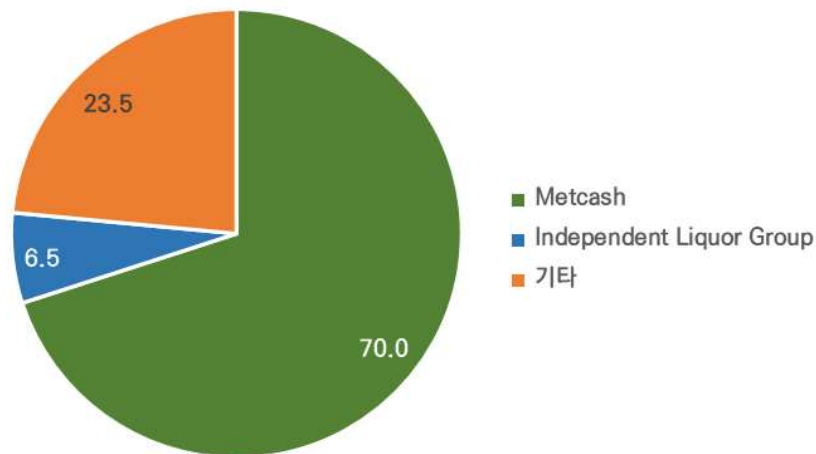
- 이어서 Independent Liquor Group이 6.5%로 2위를 차지함
- Metcash는 호주의 대표적인 주류 도매 유통사로 호주 및 뉴질랜드 전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으며, 약 8,500종의 주류 제품을 취급함



그림 8

호주 주류 도매 유통채널별 시장 점유율(2020년)

(단위: %)



자료: IBIS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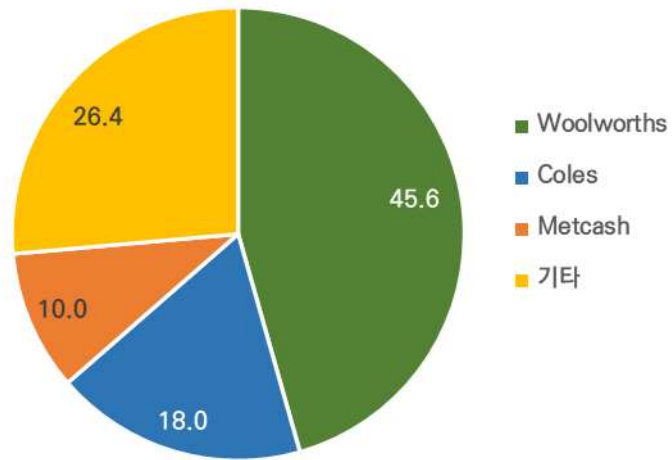
호주 소매 주류 유통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은 Woolworth로, 2020년 기준 45.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

- 이어서 Coles가 18.0%로 2위를 차지함
- 소매 유통에서 오프라인 채널은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며, 온라인 채널은 약 10%를 차지함
- 주류는 성인 인증을 거치면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대표적인 온라인 채널로는 각 유통사 홈페이지, 종합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음



그림 9 호주 주류 소매 유통채널별 시장 점유율(2020년)

(단위: %)



자료: IBISWorld


# 02 주요 유통채널 분석

## 호주 와인 유통채널

### 1. 슈퍼마켓/하이퍼마켓

호주의 주요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 기업으로는 울워스그룹(Woolworths Group), 콜스 그룹(Coles Group), 알디 그룹(Aldi Group) 등이 있음  
 -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울워스그룹으로 점유율 38.8%를 기록함.  
 이어서 콜스 그룹(31.9%), 알디 그룹(1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PB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알디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8 호주 슈퍼마켓/하이퍼마켓 주요 기업 시장 점유율(2021년)

(단위: %)

순위	기업명	시장 점유율
1	Woolworths Group	38.8
2	Coles Group	31.9
3	Aldi Group	10.3
4	Metcash	7.2
5	Australian United Retailers	2.4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2. 온라인 쇼핑물

호주 주요 온라인 쇼핑물로는 울워스그룹의 울워스(Woolworths), 웨스파머스(Wesfarmers)의 타겟(Target), 이베이(Ebay) 등이 있음

-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은 울워스그룹으로, 2021년 기준 전체 온라인 매출액의 9.3%를 차지함
- 이어서 웨스파머스(Wesfarmers, 4.8%), 이베이(Ebay, 4.8%), 콜스그룹(Coles Group, 3.9%), 아마존닷컴(Amazon.com, 3.1%) 순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호주 온라인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함

- 호주는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그동안 온라인 유통채널의 비중이 낮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 연령대의 온라인 쇼핑 사용률이 크게 증가함



표 9


호주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2021년)

(단위: %)

순위	회사명	시장 점유율
1	Woolworths Group	9.3
2	Wesfarmers	4.8
3	Ebay	4.8
4	Coles Group	3.9
5	Amazon.com	3.1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슈퍼마켓: 울워스(Woolworths)

		<b>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워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하이퍼마켓</li> <li>- 신선식품 및 육류 제품의 대부분이 호주 현지 제품임</li> <li>- 2020년 음료 및 주류 배송 기업 Shorty's Liquor 인수</li> <li>- 신선식품, 즉석식품, 음료, 주류 등을 취급함</li> <li>- 2021년 기준 호주 내 약 1,000개의 매장 보유</li> </ul>
<b>유통채널명</b>	Woolworths		
<b>홈페이지</b>	www.woolworths.com.au	<b>본사 소재지</b>	1 Woolworths Way Bella Vista NSW 2153
<b>입점 절차</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하단 'Suppliers' 클릭</li> <li>- 'Start your application now' 클릭 후 양식 작성</li> </ul> </li> <li>2) 입점 등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 제출</li> <li>- 지원서 검토</li> <li>- 카테고리 매니저 연락</li> <li>- 추가 정보 제공</li> <li>- 공급자 계약서 작성</li> </ul> </li> </ol>			



## 슈퍼마켓: 콜스(Coles)

		<b>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스 그룹은 주류 판매점 Liquorland, 소규모 매장 Coles Express 등 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함</li> <li>- 2021년 기준 약 800개 매장 보유</li> <li>- 신선식품, 주류, 음료 등을 취급함</li> </ul>
<b>유통채널명</b>	Coles		
<b>홈페이지</b>	www.coles.com.au	<b>본사 소재지</b>	800 Toorak Road Hawthorn East, VIC 3123
<b>입점 절차</b>			
<p>1) 제3자 플랫폼 레인지미(Range Me)를 통한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인지미 계정 등록 후 브랜드 정보 및 제품 페이지 제작</li> </ul> <p>2) 등록 시 필요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 정보: 기업명, 매출액, 카테고리, 브랜드명, 주소</li> <li>- 공급 제품 정보: 제품군,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 사진, 판매 가격 등</li> </ul> <p>3)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번호: +61-2-9199-8530</li> <li>- 공급자 포털 사이트: <a href="https://suppliercentral.coles.com.au/s/knowledge-centre/article/RANGEme">https://suppliercentral.coles.com.au/s/knowledge-centre/article/RANGEme</a></li> </ul>			

##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ebay)

		<b>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미국에서 설립된 종합 쇼핑몰로,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임</li> <li>- 호주에는 1999년에 진출함</li> <li>- 해외 판매 가능한 3자 판매 형식 온라인 마켓</li> <li>- 할인 이벤트, 무료 배송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li> </ul>
			<b>유동채널명</b> ebay
<b>홈페이지</b> <a href="https://www.ebay.au">https://www.ebay.au</a>	<b>본사 소재지</b> 10th floor, 45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b>입점 절차</b>			
<p>1)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정 생성 후 판매자 등록</li> <li>- 개인 판매자 또는 스토어 판매자 중 선택하여 입점</li> </ul> <p>2) 작성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li> <li>-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 가격, 소비자 가격 등</li> <li>- 참고 자료: 회사 소개서</li> </ul>			

# IV

## 통관 및 제도



# 01 통관 및 검역

## 한국 수출 통관 절차

### 출항 전 보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정식 수출신고와 목록통관으로 구분됨

### 수출신고 서류 준비

- ① 정식 수출신고:
  -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 이외 물품의 수출
- ② 목록통관:
  -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품의 수출 절차
  - 목록통관은 일반적인 특송 업체 또는 우체국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임
  - 대상은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FOB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의미하며 카탈로그, 서류, 외교행낭 물품 등이 있음
- 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FOB 200만 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쉽게 변환하여 기존의 수출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반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수출 통관 절차도



### 서류 구비

수출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전략물자 자가판정서(필요 시)

###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시
- 환급 대상 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유리한 환급방식 검토 및 선정
- 수출 물품의 HS CODE 검토: 정확한 수출신고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한 검토
- 물품의 소재지 확인: 수출신고 예정물품의 검사를 위해 수출신고 시점의 물품 소재지 확인 필요

### 수출신고

-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 UNI-PASS에 전자 접수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현품검사 또는 자동수리(Paper Less; PL)로 통지됨

### 세관 심사

- 위의 수출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세관의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의 경우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 상 일치 여부를 확인함
  - 현품검사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지 또는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기)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 호주 수입 통관 사전 절차

###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발급

#### (1) 개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신고를 진행해야 함. 호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임

#### (2) 비거주자 GST 등록 대상<sup>3)</sup>

비거주자로서 호주의 GST 등록 의무대상은 다음과 같음. 다만, 모든 판매가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록할 필요 없으며, GST 등록 시 12개월간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호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연간 7만 5,000호주 달러인 경우(매출액에는 소비자 대상 1,000호주 달러 이하의 소액 판매와 수입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 판매를 포함함)

#### (3) GST 등록 방법

GST 등록에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처럼 간이(Simplified)와 일반(Standard) 두 가지가 있음. 다만, 온라인, 직접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호주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는 비거주자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 등록을 사용할 수 없음. 이런 경우에는 일반 등록을 이용해야 함. 또한, 간이 등록의 경우에는 ABN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등록의 경우에만 ABN을 발급받아야 함

#### (4)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발급 절차

외국에서 ABN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후 Reference Number를 확인하여 아래의 "Cover Sheet" 서류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호주 국세청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함. 아래 서류는 ABN 발급 절차 링크<sup>4)</sup>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함

- 신분증명서(proof of identity)
- 영업활동 신고서(a statement of your business activities in Australia)
- 비거주자 ABN 신청서(Non-resident ABN application - certified identity documents cover sheet)

3) Non-resident businesses and GST  
<https://www.ato.gov.au/business/international-tax-for-business/Non-resident-businesses-and-GST/>

4) 링크 [www.abr.gov.au/business-super-funds-charities/applying-abn/abn-businesses-outside-australia](http://www.abr.gov.au/business-super-funds-charities/applying-abn/abn-businesses-outside-australia)



수입 허가  
(Import Permit)

호주 검역규정(Quarantine Act 1908)에 따르면, 모든 식품 관련 수입은 수입 시 검역규정을 통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수입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신선한 과일 및 야채, 유제품, 달걀 및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경우, 식품 수입 전 수입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함. 호주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Forestry) 산하의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웹사이트에서 'Import Conditions'을 통해 수입 물품별 허가 필요 여부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주류 수입 요건<sup>5)</sup>

- 수입 허가: 의뢰 품목이 속한 "Alcoholic beverages"는 사람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입허가 대상이 아님
- 수입 요건: 주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아래 서류를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함

## 수입 요건

- 사람이 소비하기 위한 것
- 물품이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되었다는 증거
- 물품이 추가 처리 없이 소매 판매가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

##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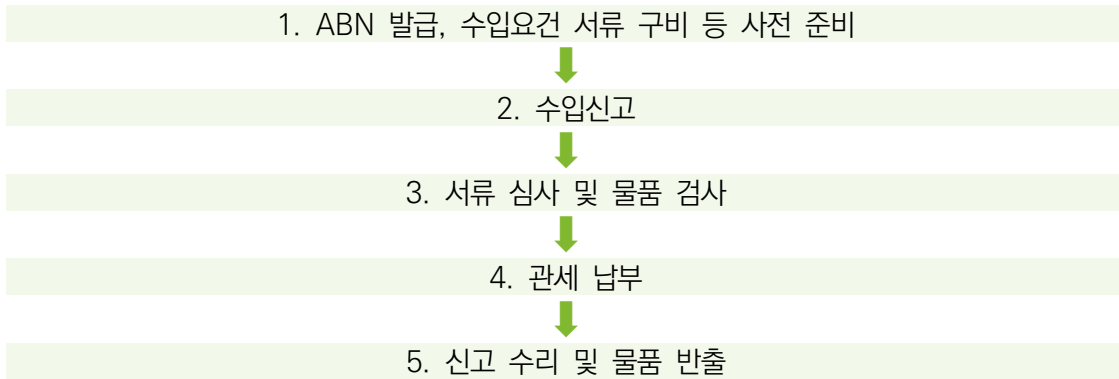
- 제조업체 신고서(Manufacturer's declaration)
- 공급업체 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
- 수입업체 신고서(Importer declaration)
- 상업송장(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식품 라벨(Food product label)

## Client 등록

- 호주 통관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orm B319(Clie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하여 ICS에 Client로 등록해야 함

5) BICON - Import Conditions - Alcoholic beverages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ImportConditions/Conditions?EvaluatableElementId=677449&Path=UNDEFINED&UserContext=External&EvaluationStateId=63727633-c996-4841-aa79-4ad8cf9b359a&CaseElementPk=1939286&EvaluationPhase=ImportDefinition&HasAlerts=False&HasChangeNotices=False&IsAEP=False>

## 호주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신고

호주에서 물품을 수입 통관하려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세사를 이용하거나 ICS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수입신고 종류		내용
간이수입신고 (SAC, Self-Assessed Clearance)	Short format SAC	해상 또는 항공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수입 허가가 필요한 화물을 이용할 수 없음)
	Long format SAC	해상 또는 항공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관세 감면 및 양허세율의 적용,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Nature10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를 초과하며 호주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경우(일반적인 수입신고 형태)	
Nature20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를 초과하며 수입통관 전 창고에서 보관하는 경우	
Nature30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를 초과하며 창고에서 보관하기 위해 N20으로 신고 후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통관 하려는 경우	
Nature10/20	하나의 화물에 국내 소비용과 창고 보관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의뢰 품목이 속한 주류는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Short SAC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하려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N10 또는 Short/Long SAC을 통해 수입신고가 가능함

## 제출 서류

호주에서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주류의 경우 반드시 HS CODE, 수량, 가격, 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수입신고서
- 운송서류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허가서 또는 승인서(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EOI; Evidence of Identity)

## 물품 검사

ICS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녹색신고(Green line), 황색신고(Amber line), 적색신고(Red line)로 분류되어 처리됨. 녹색 신고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품목 분류, 검역 정보,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적색신고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짐. 위장 수입 물품이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황색신고로 분류되어 정밀 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됨

구분	내용
녹색신고 (Green line)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수입자 혹은 대행업체가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됨.
적색신고 (Red line)	품목분류의 오류나 검역 대상 물품이 적절한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황색신고 (Amber line)	위장 수입물품이나 관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및 수입금지 또는 제한 물품 혹은 이와 같은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 식품 검역

호주 수입 식품은 생물보안법 2015에 따른 호주의 생물보안 규정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관장하는 호주 식품안전기준(Australian Food Safety Standards)을 준수해야 함. 이를 기반으로 Risk food, Surveillance food 등으로 구분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카테고리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식품별 기준은 FSANZ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위험 식품 (Risk Food)	호주 검사규약에 따르면, 인체에 중-고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식품 제품군을 위험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생물 및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식품군이 대상임. 위험 식품으로 규정된 식품들은 100% 검사가 진행되며, 5번 연속으로 검사를 통과할 경우 25%의 확률, 25번의 검사를 통과할 경우 5%의 확률로 검사가 진행됨. 호주 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들 식품은 즉시 반송 혹은 폐기되며,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판매가 불가능함
감시 식품 (Surveillance Food)	위험 식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식품 제품군은 모두 감시 식품으로 규정되며, 이는 인체에 저 위험도 식품으로 구분됨. 이들 제품군은 5%의 확률로 검사가 진행되며, 저 위험도로 구분됨에 따라 검사 결과 확인 전에 판매가 가능함. 만약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을 경우, 수입자 부담 하에 수입한 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해야 함

## 관세 납부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음

## 화물 반출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이후 물품 반출까지는 최소 15시간(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며, 물품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02 인증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필수)

### 1.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의 영문 약자로, 해썬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함

- 국제 인증 규격인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향상하고 및 지속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2. 대상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산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 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

#### 1)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등

#### 2) 축산품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업
- 가축사육업
- 사료제조업 등

### 3. 인증 절차<sup>6)</sup>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 ↓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품기술서와 공정흐름도 작성
- ↓
3. 생산공정 각 단계와 도출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위험을 평가
- ↓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Critical Control Points)을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을 파악
- ↓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한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 4. 제출 서류

HACCP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HACCP 신청서
  - 식품인 경우 전품목 전업종 인증심사비용은 20만 원임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등 사본
- 영업신고필증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 면적이 확인되어야 함
-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 과정(94시간 이상): 대표자
  - 종업원 과정(24시간 이상): 직원 중 1인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 점검기록,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서에 따른 서류

6) 식품제조업체 HACCP 적용절차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5>



## 5. 인증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절차 및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HACCP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 종류로 나뉘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6. 의무 적용 대상

###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 식품이 확대됨. 기존에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12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2) 대상 식품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 면을 냉동한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국수: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이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3) 유예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함. 다만,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 4) 행정처분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 03 라벨링



표 10

호주 주류 라벨링

라벨 필수 표시사항 및 기준	알코올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모든 음료는 라벨에 알코올 함량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함</li> <li>- 1.1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음료는 라벨에 알코올 함량을 ABV 또는 100mℓ당 알코올 함유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함</li> <li>- 1.15% 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음료는 '알코올 부피 기준 X% 이하 함유'라는 문구로 작성해야 함</li> </ul>
	표준 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모든 음료에는 표준 잔기에 대해 표기해야 함</li> </ul>
	임신 경고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음료에는 픽토그램 또는 픽토그램 및 문구 형태의 임신 경고 라벨이 포함되어야 함</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영양 정보 및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 정보를 주장하지 않는 알코올 음료에는 영양 정보 패널(NIP)이 필요하지 않음</li> <li>- 1.1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모든 알코올 음료는 에너지 함량, 탄수화물 함량, 글루텐 함량에 대한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음. 또한, 저도수 음료로 표시할 수 없음</li> </ul>

자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7) 호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표준잔(Standard Drink) 개념을 도입하여 술에 함유된 순수 알코올 함량을 그램(g)으로 표기함. 호주는 WHO 기준을 채택하여 1 표준잔을 순수알코올 함량 10g으로 정의함

# 04 위생요건

## 식품 첨가물 규정

호주의 식품 첨가물 규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 규정하고 있음

호주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은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에 접속하여 통관 > 식품 첨가물/유해물질DB > 호주 > 식품 유형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과실주를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 KATI에서 과실주의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을 검색한 결과, 총 518건의 관련 기준이 검색됨

## 유해물질

KATI농식품수출정보에서는 국가별 식품 유형별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로 딸기 와인 수출 시 적용되는 유해물질 조사를 위해 '과실주'로 검색한 결과, 총 30건의 유해물질과 사용기준이 조회됨
- 하기 표는 그 중 일부이며, 전체 기준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또는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표 11

과실주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기준

순번	유해물질명	식품 유형	잔류허용 기준
1	Methanol (Methyl Alcohol)	기타 증류주, 과일주, 채소주 및 벌꿀술	8g/L of ethanol
2	Buprofezin	모든 식품	0.05mg/kg
3	Bromoxynil	모든 식품	0.1mg/kg
4	Bixlozone	모든 식품	0.01mg/kg
5	Cyazofamid	모든 식품	0.04mg/kg
6	Fluroxypyr	모든 식품	0.02mg/kg
7	Fenoxycarb	모든 식품	0.1mg/kg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V

시사점





# 01 수출 확대 방안

## 호주 시장의 특징

지원 기업 품목인 딸기 와인 제품은 와인 시장에 속함

(시장 규모)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비(非)포도 와인 시장은 포도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와인 및 담금주를 포함함. 딸기 와인이 포함되는 호주의 비(非)포도 와인 시장 규모는 2021년 1,030만 호주 달러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9%를 기록했으나, 향후 5년간(2022-2027년)은 연평균 성장률 3.9%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2026년 1,280만 호주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입) 글로벌 딸기 와인 최대 수입국은 미국(전체 수입액의 26.7%)이며, 다음으로 영국(10.8%), 중국(6.0%), 홍콩(5.2%), 일본(4.3%) 순서이며 호주는 17위로 전체 수입액의 약 1.2%를 차지함

호주의 딸기 와인 수입 규모는 2021년 기준 2,268만 2,000달러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5.2% 감소함. 호주의 딸기 와인 최대 수입국은 뉴질랜드(전체 수입액의 25.6%)이며, 다음으로 일본(22.5%), 스웨덴(16.8%), 아일랜드(14.8%), 한국(8.3%) 순서임

- 호주의 한국산 딸기 와인 제품 수입액은 2021년 기준 189만 1,000달러로 전체 수입국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8.3% 성장하였음

(트렌드) 호주 소매점 기준 주종별 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맥주가 전체의 36%의 비중을 나타내며 1위를 차지함. 다음으로 와인(26%), 증류주(22%), RTD(13%), 사이더(3%) 순서임. 사이더는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최근 저도수 및 과일맛 주류 제품이 유행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호주 내 웹트래픽 수가 높은 아마존에서 딸기 와인(Strawberry Wine)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선물, 향기, 원산지, 집, 호주 스타일, 기념일, 생일과 같은 연관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음

팬데믹 이후 호주 소비자들이 와인을 자주 소비하는 대신 품질이 우수한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와인 시장의 프리미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유기농 와인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음

- 2021년 기준 호주의 비(非)포도 와인 기업별 시장 점유율은 Konishi Brewing이 전체의 20.0%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1위를 차지함. 다음으로 Gekkeikan Sake(13.0%), Yoshinogawa(7.0%), Asamai Shuzo(4.0%) 순서임



호주 와인 시장의 유통방식별 점유율은 온 트레이드(On-trade)와 오프 트레이드(Off-trade)로 구분됨. 온 트레이드는 바, 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을 통해서 판매되는 방식 등이 속하며, 오프 트레이드에는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소형 식료품점 등을 통해서 판매되는 방식 등이 있음. 팬데믹 이후 2020년을 기점으로 온 트레이드 시장 규모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오프 트레이드 시장 규모는 최근 5년(2017-2021)간 연평균 성장률 6.7%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함

(유통) 호주 주류 시장의 유통은 크게 도매와 소매로 구분됨. 주류 도매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은 Metcash로 전체의 70.0%를 차지했는데, 대표적인 주류 유통사인 해당 기업은 호주 및 뉴질랜드 전역에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음. 다음으로 Independent Liquor Group(6.5%)이 2위를 차지함

한편, 소매 주류 유통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나타낸 기업은 Woolworths로 전체의 45.6%의 비중을 기록함. 다음으로 Coles(18.0%), Metcash(10.0%) 순서임. 소매 유통에서 오프라인 채널은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며, 온라인 채널은 약 10%를 차지함. 호주에서 주류 제품 구매 시, 성인 인증을 거치면 온라인 유통채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대표적인 온라인 채널로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과 각 유통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들 수 있음

- 호주의 주요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 유통망은 울워스그룹(Woolworths Group), 콜스그룹(Coles Group), 알디 그룹(Aldi Group)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2021년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은 울워스 그룹(38.8%)이며, 다음으로 콜스 그룹(31.9%), 알디 그룹(10.3%) 순서임
-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는 울워스그룹의 울워스(Woolworths), 웨스파머스(Wesfarmers)의 타겟(Target), 이베이(Ebay) 등이 있는데, 2021년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은 울워스 그룹(9.3%)이며, 다음으로 웨스파머스, 이베이(각각 4.8%), 콜스그룹(3.9%), 아마존닷컴(3.1%) 순서임.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호주에서 그동안 온라인 유통채널의 비중은 낮았으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전 연령대의 온라인 쇼핑 사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통관 및 제도

(통관 및 검역) 호주는 ABN 발급을 수입 신고 이전에 해야함. 통상 호주에서 물품을 수입 통관하려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세사를 이용하거나 ICS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함. 이후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관세 납부,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의 단계를 거침

-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서, 운송서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및 허가서 또는 승인서(해당 시), 신분증명서(EOI: Evidence of Identity) 등이 필요함. 주류의 경우 반드시 HS CODE, 수량, 가격, 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인증 및 라벨링) 호주로의 수출 시, 국제 인증 규격인 HACCP 필수 인증을 받음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향상 및 지속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호주 주류 라벨링에는 알코올 함량, 표준 잔, 임신 경고 라벨 등의 항목이 필수 표시사항이며, 알코올 함량에 대한 정보가 라벨링에 표기되어야 함

- 0.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모든 음료는 라벨에 알코올 함량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야 함
- 1.1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음료는 라벨에 알코올 함량을 ABV 또는 100mℓ당 알코올 함유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함
- 1.15% 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음료는 '알코올 부피 기준 X% 이하 함유'라는 문구로 작성해야 함. 또한, 1.1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음료에는 픽토그램 또는 픽토그램 및 문구 형태의 임신 경고 라벨이 포함되어야 하며, 1.15%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모든 알코올 음료는 에너지 함량, 탄수화물 함량, 글루텐 함량에 대한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고, 저도수 음료로 표시할 수 없음

(첨가물 및 유해물질 기준) 호주의 식품 첨가물 규제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KATI농식품수출정보에서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호주 과실주의 식품 첨가물 관련하여 총 518건의 기준이 검색됨

- 유해물질 기준 관련해서도 KATI농식품수출정보에서 관련 규정을 제공하고 있음. 호주 과실주 제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은 30개임

## 수출 확대 방안

2020년 호주 내 주종별 점유율 기준 와인(26%)의 점유율이 맥주(3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저도수 및 과일맛 주류 제품이 유행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딸기 와인 제품의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팬데믹 이후 자주 와인을 소비하는 대신 우수한 와인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서, 호주 와인 시장에서 프리미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호주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증가와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유기농 와인이 인기도 상승하는 추세임


호주 내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수입액의 8.3%를 차지하며 수입국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딸기 와인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수입액의 22.5%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 20.0% 성장하며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출단가를 낮추는 쪽을 택하기 보다는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수출 품목의 특징 및 장점, 특히 자체 생산한 친환경 딸기 100%로 제조되는 '친환경' 제품임을 호주 현지 수입업자에게 전달

- 또한, 지원 기업의 와인 종류는 딸기 와인 이외에도 아로니아 와인, 블루베리 와인, 살구 와인, 모과 와인, 매실 와인, 오미자 와인, 오가피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딸기, 모과, 복숭아, 사과) 등의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추고 있는 와인 전문 기업임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와인의 친환경 및 프리미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분석 시 '선물' 등과 같은 연관단어의 높은 출현 빈도를 고려하여 패키지의 고급화 및 선물 패키지를 개발하고, 동시에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

웰빙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화학 성분을 최소화한 자연주의 와인인 '그린 와인(Wi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호주의 친환경 '그린 와인'을 생산하는 기업의 전략 및 제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 와인 생산업체 Angove Family Winemakers에서는 다양한 유기농 와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COFCC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으며 관련 제품 생산 시 합성 화학 물질, 살충제·제초제 등이 사용되지 않은 점이 특징임
- 이외에도 'Organic Rose Piccolo' 와인은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및 수박 향을 첨가하여 제조한 핑크빛 색깔이 인상적으로 최소한의 방부제를 사용한 비건 제품임

 **그림 10** 다양한 유기농 와인(좌), 유기농 딸기 와인(우)



Angove Family Winemakers의  
'Angove Organic Wine 6 Pack'



Angove Family Winemakers의  
'Angove Organic Rose Piccolo 3 Pack'

## 참고문헌



### □ 참고 사이트

1. Euromonitor International
2. ITC World Trademap
3. 농식품수출정보(KATI)
4. IBISWorld
5.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발행 겸 편집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일자 2023.03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